“일본 대마도 차의 성지에 최초 한국사찰 문 열다”

8월 23일, 황룡사 개원 법회 봉행
(사)향기로운문화동행 대마도 지부
대마도 한국 최초 사찰 의미 깊어
이사장 보혜 스님 ‘문화포교’ 원력
법당·요사채 등 2500평 규모

일본 대마도=하성미 기자


한국과 일본 불교의 선문화와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황룡사가 일본 대마도에 문을 열었다. 황룡사는 8월 23일 경내 일원에서 현판식 및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한국과 일본 불교의 선문화와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담당할 황룡사가 일본 대마도에 문을 열었다. 황룡사는 사단법인 향기로운문화동행(이사장 보혜 스님)의 일본 대마도 지부이며 차문화와 불교, 선명상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특히 황룡사는 일본 대마도 한국 최초 사찰이며, 대마도 히타카츠에는 불교 사찰이 없어 의미가 크다.

황룡사는 8월 23일 경내 일원에서 현판식 및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개원법회에 앞서 내빈들은 입구에서 테이프 컷팅 및 현판식을 개최했다. 제막을 하자 한글과 한자로 적힌 황룡사(黃龍寺) 현판이 모습을 드러냈다. 황룡은 말 그대로 황금용을 의미하며, 바다와 산을 사이에 두고 위치한 황룡사의 위상이 마치 바다의 용이 하늘로 승천하듯 큰 기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린다는 의지를 담았다.

개원법회는 금정총림 범어사 방장 정여 대종사의 증명으로 진행됐으며,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 금강암 주지 도산 스님, 김대철 여천차문화원 원장, 최순애 한국차인연합회 부회장, 김홍희 작가, 신중식 목사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법회는 점안의식에 이어 부처님께 차를 올리는 차 공양, 법문 및 축사, 인사말 순으로 이어졌다.

방장 정여 대종사는 “세상에 많은 공덕이 있지만 불사를 해서 부처님을 모시는 공덕보다 더 수승한 것이 있겠느냐”며 “그 공덕은 한국을 넘어 일본 그리고 세상 모든 생명의 공덕이 되고 자비심의 계기가 된다면 무량광불의 세계로 인도하는 거룩한 불사로 회향하는 것이다”고 격려했다. 이어 정여 대종사는 “이곳은 바로 앞이 바다요 뒤에는 산이 있는 최고의 명당이며, 이곳이 이사장 보혜 스님의 큰 원력을 만나 뜻깊은 개원 법회라는 열매를 맺은 것”이라고 축원했다.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은 “문을 열기까지 오늘 마음을 내어 봉사하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며 “보혜 스님은 일찍부터 문화를 통해 불교를 전하고 특히 차문화와 문학에 뛰어난 성과와 업적을 남기셨다. 오늘 이곳 황룡사는 보혜 스님의 모든 역량이 자연스럽게 녹아 힐링도량으로 우뚝 자리할 수 있는 것 같다.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황룡사 주지 보혜 스님은 “정말 우연히 만난 인연이 이어져 불사를 시작했고 이렇게 개원법회를 열게 됐다”며 “평소 명상과 다도에 관심이 많았고 불교 차문화를 위해 일본과 교류도 해왔는데 앞으로 본격적인 문화교류 요충지로 자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많이 된다. 한국 뿐 아니라 일본 대마도 주민들도 반기고 있어 황룡사 개원은 진심으로 운명처럼 느껴질 정도로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된다”고 말했다.

황룡사는 대마도 북부 히타카츠항 인근 이즈미(泉) 마을에 위치한다. 대마도의 대주요(對州窯)로 추측되는 중요 지역으로 2018년 한국인이 매입해 보혜 스님의 문화포교 원력에 동참하며 보시했다. 대주요는 대마도의 도요지로서 조선의 다완(茶碗) 제작 요청과 관리를 담당한 기관을 의미한다. 임진왜란 후 대마도는 각종 다완을 조선에 요청했고 부산요(釜山窯)의 왜관을 통해 수출된 다완을 관리한 곳이다. 현재도 황룡사에는 전통 다완을 굽는 가마가 있으며 도자기를 만드는 중요한 재료인 백토가 나오는 지형이다.

앞으로 황룡사는 본격적인 불교 및 선명상, 차문화를 위해 체험을 강조하는 명상문화학교를 개원할 예정이다. 또 국제차문화 축제를 열어 문화를 교류하고 갤러리를 개관해 예술인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장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부산 장산 대원각사 반려동물 무료천도재

8월 25일 경내 대웅전서

반려동물의 평안을 위하고 반려인을 위로하는 ‘반려동물 무료합동천도재’가 열렸다.

부산 해운대 장산 대원각사(주지 안도 스님)는 8월 25일 대웅전에서 ‘제1회 반려동물 무료합동천도재’를 봉행했다.

식전행사로 부산불교환경연대 중창단의 ‘아름다운 인연’ 음성공양과 클라리넷 ‘인연’의 공연이 진행됐으며 이어진 반려동물 천도재는 고양이 50마리와 개 70마리를 위한 축원과 아미타경 독송이 있었다.

대원각사 주지 안도 스님은 “부처님 입장에서는 모든 만물 만생이 다 평등하다. 사람만이 고귀한 것이 아니고 짐승이나 땅에 기어다니는 지렁이나 모두 다 인간들과 동등하고 평등한 소중한 존재들”이라고 밝혔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부산 마하사, 위안부 여성독립군 추모재

8월 23~24일 민주공원 일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천년고찰 부산 마하사(주지 정산 스님)가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여성독립군의 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2024 아시아생명평화문화축전’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8월 23일 민주공원 소극장에서 열림굿으로 길놀이, 지신밟기 등이 진행됐으며 8월 24일 행사는 부산 마하사에서 일본군위안부 천도재, 생명평화콘서트, 은빛탈춤한마당이 진행됐다. 〈사진〉 이도경 부산지사장



“자살·교통사고 없는 부산 만들겠습니다”

부산불교교육대학 · 화엄승가회
자살 ·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부산불교교육대학과 화엄승가회가 8월 25일 부산 자유회관에서 ‘제7회 자살 교통사고 예방 합동캠페인’ 을 개최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 스님)과 화엄승가회(회장 자인 스님)가 8월 25일 부산 자유회관에서 ‘제7회 자살·교통사고 예방 합동캠페인’을 개최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과 화엄승가회는 매년 자살을 예방하고 교통사고를 막아 살기좋은 부산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위령대재로 시작했으며 ‘경로 효(孝) 대잔치’를 열어 지역 이웃을 위한 자비나눔을 진행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삼귀의 및 반야심경 △발원문 낭독 △내빈소개 △참여단체 소개 △헌화 △대회사 △격려사 △축사 순으로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작은 관심의 표현이 자살 예방의 시작이라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부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5030 속도 지키기와 교통사고 운전자 안전수칙이 적힌 안내장을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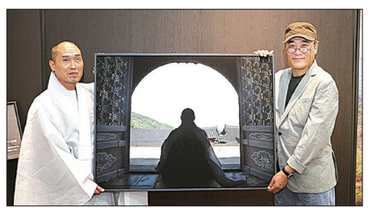
학장 범혜 스님은 “자살은 악업을 지어 괴로움을 받게 되는 시작일 뿐이다.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길을 찾고 선한 업을 짓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더 새겨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화엄승가회 회장 자인 스님은 “부산의 거리에 교통사고가 줄고 자신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자살이 없는 부산을 만들어가는 것이 부처님의 사무량심”이라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문진우 작가, 범어사 작품사진 기증

8월 27일 작품 기증식 개최



문진우 다큐멘터리 사진작가가 범어사 성보박물관에 작품 사진 1000여 점을 기증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정오 스님)은 8월 27일 박물관에서 ‘문진우 작가 사진 기증식’을 개최했다.〈사진〉

문진우 작가는 지난 6월 범어사 성보박물관 기획 사진전 ‘금정산 빛그리메’에서 금정산과 범어사를 주제로 사진전을 진행해 일부 작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전시를 인연으로 문진우 작가는 전시 사진을 비롯해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촬영한 사진 1000여 점을 기증했다. 기증받은 사진은 범어사와 부산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전시 및 교육, 연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범어사 성보박물관 관장 정오 스님은 “문진우 작가가 촬영한 범어사와 금정산 사진을 많은 분들과 나누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오랜 기간 동안 작품 활동을 통해 남기신 작품이며, 작가에게 작품은 자식과도 같은 의미이다. 부산 시민들과 공유하고 발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애쓰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문진우 작가는 “작품을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받아주셔서 감사하다”며 “저의 작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를 위해 활용된다는 것이 진심으로 기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